코로나19 신규확진 이틀 연속 1만명대

1만59명 신규확진…전주 대비 3813명 증가
주중 1만명 안팎 기록…전날보다 656명 줄어

지난 2일 전국에서 1만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9명 늘어 누적 1838만9611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만715명보다 656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6246명보다는 3813명 증가했다.

주중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효과가 나타난 지난달 27일에만 3429명이었고, 이후 28일 9894명→29일 1만455명→30일 9591명→7월1일 9528명→2일 1만715명으로 1만명 안팎을 계속 기록했다.

최근 4주간 일요일 기준 확진자 수는 지난달 12일 7377명→19일 6066명→26일 6246명을 기록하다 이날 1만명대로 올라섰다. 일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29일(1만2647명) 이후 5주만이다.

이날 국내발생 확진자는 9868명이다. 이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1417명(14.4%),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2008명(20.3%)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91명이다. 이중 15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경기 2637명, 서울 2437명, 인천 516명 등 수도권이 5590명(56.6%)다.

비수도권에서는 4278명(43.4%)발생했다. 경남 572명, 부산547명, 경북 521명, 충남 412명, 대구 291명, 울산 283명, 강원·전북 257명, 전남 241명, 대전 237명, 충북 209명, 제주 200명, 광주 181명, 세종 70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증가해 누적 2만4570명이 됐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53명으로 닷새째 50명대를 기록했다. 새로 입원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65명이다.

지난 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5.7%로 여유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가동률은 5.4%, 비수도권은 6.6%다.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8.7%,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6.4%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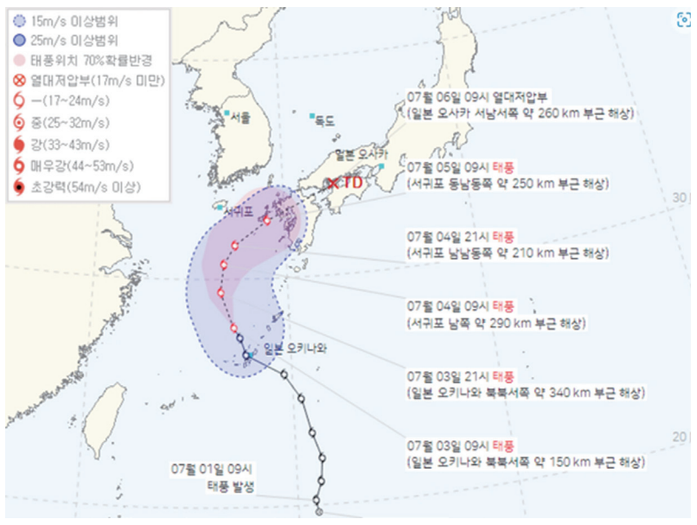
재택치료 대상자는 5만5573명이다. 전날 1만223명이 신규 재택치료자로 배정받았다.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2164명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전국에 844개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는 187개소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19개가 있다. 이중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11개가 운영 중이다.

김재환 기자

태풍 '에어리' 일본 방향…한반도에는 무더위 주고 간다



6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염 계속

한반도로 북상 중이던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오른쪽으로 꺾여 일본 규슈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무더위를 몰고올 것으로도 예측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1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7㎞로 북상 중이다.

이후 다음 날~5일에는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 6일께 일본 오사카 서남서쪽 약 26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의미하는 에어리는 중심기압이 994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은 초속 19m, 강풍 반경은 250㎞다.

한반도의 경우 태풍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일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이 생기겠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에어리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많이 차단돼 지금 시점부터는 더이상 추가적으로 발달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규슈 북부를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어리는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 넣을 전망이다. 고기압의 영향과 강한 햇볕으로 지면 가열과 열의 정체가 이뤄져 6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다.

이와 함께 대기 상하층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륙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7일 이후에는 저기압이 동반된 장마전선에 의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슬비 기자

제주 비켜가는 태풍, 더위 계속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대에서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에어리'(AERE)는 오는 4일 진로를 변경해 일본 규슈를 향할 것으로 예측됐다.

떼로 바글바글…도심 점령한 '러브버그'

러브버그 출현 민원 잇따르자 지자체 긴급 방역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러브버그(사랑벌레)'가 출몰해 지자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다.

은평구는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함을 주는 이른바 러브버그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1㎝가 조금 안 되는 파리과 곤충이다. 짝짓기하는 동안은 물론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함께 붙여다녀 러브버그라고 불린다. 알→애벌레→번데기→성충의 과정을 거친 뒤 성충은 3~4일동안 짝짓기한 뒤 수컷은 바로 떨어져 죽고, 암컷은 산속 등 습한 지역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날씨가 습해진 가운데 산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러브버그는 해충은 아니지만 생김새가 혐오감을 주고, 건물 내부, 창문, 아스팔드 등에서 떼로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지인 흉기로 협박한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19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에 관한 욕을 듣자 화가 나 B씨를 마트 앞으로 불러 숨겨온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그는 겁에 질려 인근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실랑이 중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편의점 CC(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찌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이슬 기자

무안경찰, 제3회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무안경찰서는 6월 29일 각 과장, 계·팀장, 지역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가장 안전한 무안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제3회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경찰, 조직문화 선도 청렴그룹회의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청렴선도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보성경찰,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6월 30일 보경마루에서 보성 모범운전자 35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소방,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 참여

광양소방서는 6월 29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6월 29일 전통시장(무등시장·봉선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완도해경,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